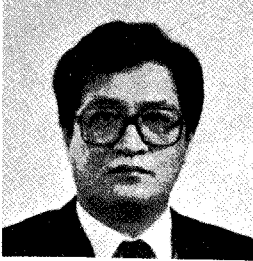


잃어버린 영웅



장경국
선진축산(주) 이사

만은 짐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커다란 화물 하나가 소홀한 적재 탓으로 도로 한복판에 떨어지고 화물차의 기사는 이 사실을 알자 못한채 그대로 질주하였다.

이 도로 복판에 떨어진 화물로 인해 고속도로는 커다란 교통 혼잡이 야기되었다. 중앙선을 가로질러 차선을 가로막고 있는 화물은 고속으로 주행하던 차량들을 일순 정지시켰고 이어 모든 차들이 이 화물을 우회하기 위해 서행 운전하며 화물 옆으로 비어져 있는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얼마 안되어 고속도로상에는 긴 자동차의 행렬이 생기게 되었다.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화물 근처의 차량들은 조금만 있으면 그 옆을 통과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자동차 행렬의 뒷쪽에 있는 차량들은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도로복판에 떨어진 화물을 치우지 않았다. 아마도 뒷쪽에 있는 운전자들이 앞의 상황을 알았다면 그 화물을 치우지않고 자신만 먼저가려고 우회하는 운전자들을 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거북이 걸음으로 겨우 문제의 지점에 도착한 운전자들은 교통정체의 원인이 실수로 떨어진 화물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 역시 화물을 치우기 보다는 여태껏 기다리며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 분해서 그 지점을 빨리 빠져 나가려 한다. 자신이 차에서 내려 화물을 길옆으로 치우는 약간의 수고를 한다면 자기 이후에 오는 운전자들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개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않는 것이다. 단지 화물을 떨어뜨리고 간 화물차의 기사를 욕하거나, 빨리 그 화물을 치워주지 않는 고속도로 순찰대를 탓하고, 앞서간 다른 운전자들의 무성의를 비난하면서도 결국은 그 자신도 화물을 비켜가기에 급급한 것이다. 그 누구도 화물을 치우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한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그 화물이 치워질 때까지 교통정체는 계속될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웅”이라 표현한다. 실제로 차에서 내려 떨어진 화물을 치웠다고 영웅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크게 문제시 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아무도 화물을 옮기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문제가 될뿐이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때문에 하지 않는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위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내 자신이 약간의 수고 혹은 희생을 함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이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이 편안해질 수 있

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약간의 수고나 희생을 아끼려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이는 내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이 앞서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어느 하나를 추구하므로 다른 하나가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남게 된다.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자신의 이해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인지 모른다. 때문에 눈앞에 닥친 이해관계에 우리들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현명하지 못한 판단은 상대방과 나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현명하지 못한 판단은 모두에게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도로 중앙의 화물을 피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와 축산정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과연 상충되는 이해관계이기만 한 것인가? 그것을 해결할 영웅은 누구인가?

축산농가는 수시로 정부의 축산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해 왔다.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느닷없이(?) 소비자 운하며 그와 상반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축산농가로 하여금 깊은 시름에 빠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지원여하에 따라 웃고 울 수밖에 없는 축산인으로서는 당연히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축산농가가 잘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정부와 축산인의 이해가 상충될까? 물론 그럴리는 없다.

그러나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 집단중 어느 집단의 이해는 축산농가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규모에 따라, 혹은 사육축종에 따라 그 입장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생산자, 상인, 소비자의 관계에서는 더욱 심한 이해상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겠다.

그러나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그 이해관계는 조정되어야만 한다. 특히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전체를 위하여 때로는 특정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집단의 이익추구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곤경은 받는 집단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만은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

고속도로에 떨어진 화물, 심각한 교통체증 우리 축산인 모두는 과연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혹시나 앞서간 운전자를, 혹은 고속도로 순찰대를 욕하거나 닳하지는 않았는지.

이제 우리 스스로도 자신만의 지나친 이익추구 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며 조금씩 수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듯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잃어버린 영웅을 찾는 지름길이며 이해상충을 이해보완으로 전환하는 현명한 방법인듯 싶다. **영웅**